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류 유 리

장 석 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밝히고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이에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부모-자녀 관계와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면서, 개인 내적 변인을 대표하는 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분노표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증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의의와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 자아존중감

* 본 원고는 류유리(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Tel: 02-2287-5497
E-mail: schang@smu.ac.kr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은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특히 교급(敎級)이 높아질수록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가 올라가며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저하된다는 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와도 관련이 되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무르는 단계이며(Piaget, 1965; 송명자, 1995 재인용),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되어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체감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크고, 따라서 정서 표현이나 문제행동이 더 격하게 외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아청, 2004; 이희정, 조운주, 2010).

이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들이 보이는 정서 표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그에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게 되고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며, 특히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더 이른 나이에 더 세밀하고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정, 2010; 황연덕, 2012). 이러한 정서들 중 분노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 중 하나로, 미미한 짜증이나 곤혹감에서부터 격분이나 격노에 이르는 강도의 정서 상태(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를 말한다. Novaco(1994; 전인자, 2002 재인용)는 분노에 대해 어떤 사건을 위협적이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또는 불쾌한 것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분노는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인간이 가진 정서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때 나타난 부정적인 분노표현이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은혜, 2011). Spielberger와 London(1982; 김영현, 2013 재인용)은 분노표현을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의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이후 Spielberger, Reheiser와 Sydman(1995)은 분노표현을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노억제, 또는 과도한 분노표출 등을 제안하면서, 분노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할 경우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을 입거나 대인관계 손상 및 반사회적 행동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정자, 2003; 김은정, 2001; 김은정, 2010; Kopper & Epperson, 199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을 많이 보였으며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많이 보였고, 자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밖에도, 분노표출이 강한 사람은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으며 급성적인 고통에 민감하였으며(Bruehl, Chung, & Burns, 2006; 김영현, 2013 재인용), 분노억제가 신경증적 증상을 일으켜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영건, 안창일, 2003). 그에 반해 분노조절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긍정적인 사회행동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은아, 김미옥, 이봉은, 2015; 김우정, 2014; 류미희, 2014; 조영재, 이동훈, 2013).

한편,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은 연령, 성별, 기질적인 측면의 요인이 포함되고, 개인 외적 요인은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등을 포함한다(허미정, 2012). 아동의 분노표현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환경적 요인은 주로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많았는데, 부모와 자

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분노표현이 달라지고(김미영, 2012; 박성아, 2009; 박희숙, 하정희, 2007; 오지현, 2010),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아, 2009; 정운성, 2007). 또한 부모와 부정적인 애착형성을 하였을 때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하였고(김진아, 2006; 이미리, 2009; 이선주, 2010), 부모의 양육행동 역시 자녀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장지운, 2011; 한소영, 2011; 조유경, 2012).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일관적이고 지나친 훈육과 학대의 모습을 나타내며, 부모와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은 적절한 분노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분노의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분노표현을 보다 기능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선행연구자들은 분노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개인 내적 변인에도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자 정신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심리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자아존중감이 주목해왔다(김호성, 김현숙, 2014; 최해림, 1999).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약점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을 긍정적으로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연문희, 1994; 우미경, 2011; 윤현영, 2003; 최경숙, 2006).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낄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수준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고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동기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변화와 발달의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김주남, 윤선아, 2011),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분노표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은 분노표현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특성이라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감과 적대감 및 신체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서수균, 권석만,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 수준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청송, 2014; 곽연정, 2013; 류미희, 2014; 한동화,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타인도 존중하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표출한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통해 볼 때(김영현, 이지연, 2013) 자아존중감은 분노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자아존중감 또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상승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아동의 분노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노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의 연관성이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단일요인으로 살펴보는데 그쳐,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 세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간의 경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분노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는 아동의 분노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상담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분노표현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밝히고, 부모-자녀 관계와 분노표현의 사이에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와 분노표현이 유의미한 관계이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적 개입을 통해 아동의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돕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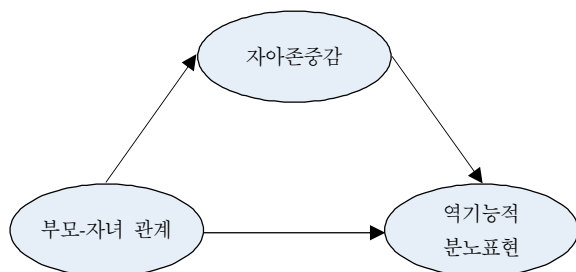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여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각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설문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학급의 담임교사의 설명과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아동이 자기보고 형태로 반응하게 하였으며 반응지는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500부 중에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등 신뢰성이 낮은 설문지와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한 442부(88.4%)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이미경, 김성희(2011)의 초등학교 생용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표현 및 친밀한 행동, 언어교류방식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친밀·지지 요인 10문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수직적 관계에서 부모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자녀를 주도적으로 훈육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권위·통제 요인 7문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동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성취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42)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16	48.9
	여학생	226	51.1
학년	초등학교 5학년	219	49.5
	초등학교 6학년	223	50.5

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과잉기대 요인 4문항, 아동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잘 공급해주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허용·지원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미경·김성희, 2011). 여기에 원척도에서는 부모 간 관계 5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간 관계 문항을 제외하고 친밀·지지, 권위·통제, 과잉기대, 허용·지원의 하위척도를 사용해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위·통제와 과잉기대 변인을 역채점하여 전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친밀·지지 .85, 권위·통제 .81, 과잉기대 .72, 허용·지원 .68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 척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의 분노표현은 한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XI-K)(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를 홍상황과 곽경숙(2008)이 개별 문항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STAXI-K는 미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를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2000)이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김은정, 2010). 원도구의 영역 분노경험(상태분노, 특성분노)과 분노표현(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압)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영역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2개의 하위요인은 각 8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출은 분노경험 시 이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소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이며, 분노억압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정도를 말한다(김은정, 2010).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

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하위요인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분노표출, 분노억압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분노표출 .75, 분노억압 .7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제작한 SES(Self-Esteem Scale)를 윤미숙(1999)이 사용한 것을 심승원(2001)이 아동에 맞는 언어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과 자아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단일 요인으로 정의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 가치, 존경, 자신의 자질과 능력,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심승원, 200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모든 척도치를 종합하여 그것을 한 개인의 점수로 삼는 합산적 평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 2, 4, 5, 19번은 부정문항으로 역산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20.0을 활용하여 부모-자녀관계,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분노표현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을 사용하여, 부모-자녀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값이 모두 1.0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r = .44, p < 0.001$)과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역기능적 분노표현($r = -.43, p < 0.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r = -.51, p < 0.001$)도 분노표현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 하위요인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하위요인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친밀·지지, 권위·통제, 과잉기대, 허용·지원은 분노표출, 분노억압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하위요인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하위요인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분노표출, 분노억압이 자아존중감 문항꾸러미 모두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잉기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427***	1									
3	.443***	-.508***	1								
4	.740***	-.329***	.482***	1							
5	.786***	-.408***	.389***	.448***	1						
6	.732***	-.287***	.240***	.288***	.485***	1					
7	.704***	-.245***	.232***	.565***	.403***	.229***	1				
8	-.374***	.869***	-.380***	-.231***	-.392***	-.291***	-.180***	1			
9	-.369***	.768***	-.401***	-.281***	-.368***	-.264***	-.179***	.587***	1		
10	.433***	-.532***	.837***	.337***	.423***	.330***	.184***	-.470***	-.499***	1	
11	.353***	-.378***	.906***	.488***	.277***	.118*	.217***	-.227***	-.236***	.526***	1
M	3.16	2.14	3.07	3.24	3.24	3.01	3.15	2.24	2.05	2.89	3.19
SD	.42	.47	.57	.51	.55	.71	.52	.53	.53	.72	.62
왜도	-.22	.33	-.38	-.58	-.06	-.43	-.63	.24	.40	-.31	-.53
첨도	-.64	.39	-.45	-.29	.93	-.33	.17	.03	.17	-.53	-.46

주) 1. 부모자녀관계 2. 역기능적 분노표현 3. 자아존중감 4. 친밀지지 5. 권위통제 6. 과잉기대 7. 허용지원 8. 분노표출 9. 분노억압 10. 자아존중감1 11. 자아존중감2

* $p < .05$, ** $p < .01$, *** $p < .001$

대와 자아존중감 문항꾸러미 2는 $p < .05$ 수준에서, 다른 하위변인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친밀·지지와 자아존중감 문항꾸러미2($r = .49, p < .001$)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으며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와 간접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R, GFI, CFI, TL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χ^2 의 값은 33.842였으며 자유도는 1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적합도는 각각 RMR = .01, GFI = .98, CFI = .98, TLI = .97, RMSEA = .053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 = .98, CFI = .98, RMSEA = .056으로 나타나 Kline(2005)이 제시한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에 부합한다(GFI, CFI, TLI > .90, RMSEA < .10).

본 연구에서 확인한 연구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beta = .56, p < .001$),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감소하며($\beta = -.37,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 감소하는($\beta = -.44, p < .001$)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면서 아동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부모-자녀 관계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검증에 원자료($N = 442$)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경험적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56)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p < .01$ 수준에서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44)을 미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37)과 간접적인 영향(-.25)을 모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가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RMR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33.571***	14	.002	.011	.981	.982	.965	.05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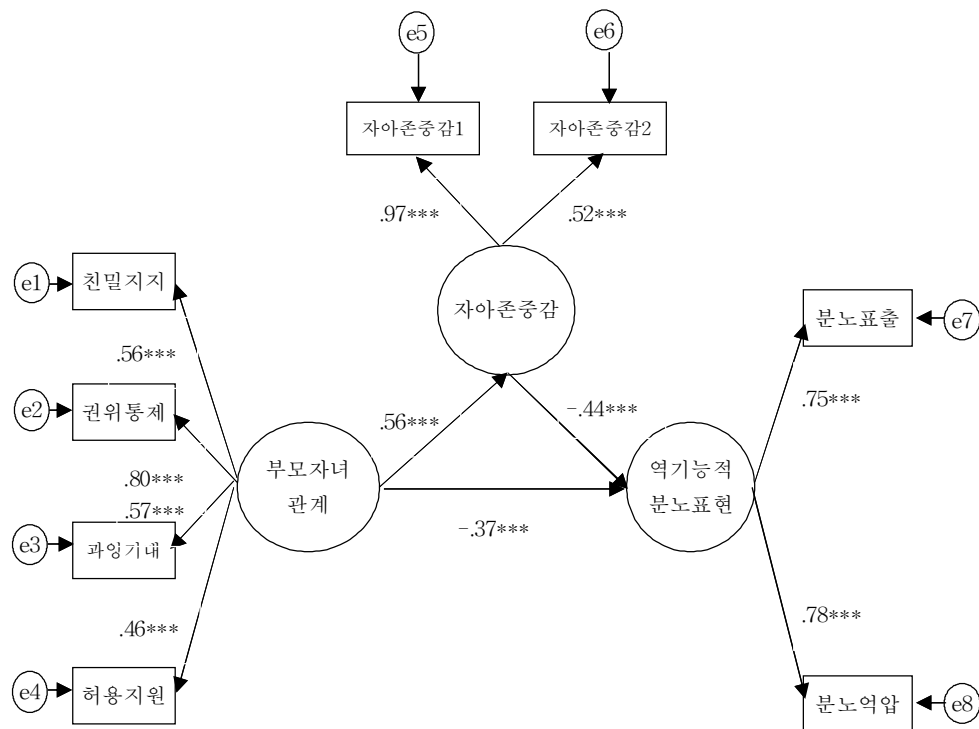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임.

***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S.E.)	C.R.	p
부모자녀 관계 → 자아존중감	1.40	.56	.17	8.28***	.000
자아존중감 → 역기능적 분노표현	-.25	-.44	.05	-4.86***	.000
부모자녀 관계 → 역기능적 분노표현	-.54	-.37	.12	-4.37***	.000

*** $p < .001$

표 5.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하한	상한
부모자녀 관계 → 자아존중감	.56**	-	.56**		
자아존중감 → 역기능적 분노표현	-.44**	-	-.44**		
부모자녀 관계 → 역기능적 분노표현	-.37**	-.25**	-.62**	-.49	-.24

**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이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영향력 있는 변인을 파악하고,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와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분노표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각 하위 변인들도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견해와 일치하는데,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며 부모로부터 받은 관심과 수용적인 양육태도, 민주적인 양육행동 등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Bishop & Ingersoll, 1989; Coopersmith, 1967; Rogenberg, 1965; Scott, Scott, & McCabe, 1991).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동이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감소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미영, 2012; 박성아, 2009; 박희숙, 하정희, 2007; 오지현, 2010)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분노표현에 관한 연구(박성아, 2009; 장지윤, 2011; 정운성, 2007; 조유경, 2012; 한소영, 2011), 부모애착이 역기능적 분노표출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진아, 2006; 이선주,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 역시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에 따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분노표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곽연정, 2013; 김미희, 2011; 김청송, 2014; 류미희, 2014; 이미리, 2009; 전인자, 2002; 한동화, 2008;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Arslan, 2009; Waschull & Kernis,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기능적인 분노표현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분노표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김미영, 2012; 박성아, 2009; 박희숙, 하정희, 2007; 이미리, 2009; 장지윤, 2011; 한소영, 2011),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곽연정, 2013; 김청송, 2014; 류미희, 2014; 한동화,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감소시키면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즉,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청송, 2014; 전인자, 2002).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루게 되면 아동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

을 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확립은 물론, 아동 스스로 자신의 분노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분노표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분노표현과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에게는 부모에 대한 개입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부모의 개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분노표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공격 행동이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으로(박회경, 김은정, 2012),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들의 분노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과 이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노와 관련된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면서, 개인내적 변인을 대표하는 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분노표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감소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울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아동이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감소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원활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고, 분노표현 역시 단일 방향으로만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모, 조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각 변인의 하위변인끼리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를 확보하여 상담적 개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매개효과를 탐색한 연구였으나 매개변인을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변인으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하위변인을 가진 도구를 사용한다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측정하였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아동이 실제 수행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평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 행동관찰, 부모 및 교사용 척도 등 다양한 평정 결과를 활용하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아동의 분노표현을 보다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적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아, 김미옥, 이봉은 (2015). 정서표현중심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이혼가정 남자청소년의 분노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23(1), 215-234.
- 고영진, 안창일 (2003). MMPI와 로사검사를 이용한 분노

- 의 억압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85-207.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곽연정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미영 (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유형 및 또래관계 질과 분노표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미희 (201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 및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영현 (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노정서의 관계에서 분노사고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영현, 이지연 (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노정서의 관계에서 분노사고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3), 3-16.
- 김우정 (2014). 분노가 대인관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은정 (2001). 아동의 분노표현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가정환경.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은정 (2010).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아동의 분노표현방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주남, 윤선아 (201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필요성: 아동기를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7, 89-108.
- 김진아 (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청송 (2014). 가족기능과 청소년 분노반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21(3), 385-407.
- 김호성, 김현숙 (2014).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5(5), 1735-1750.
- 류미희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박성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양육태도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박아청 (2004). 청소년기 자아발달의 촉진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사회과학논총, 23(2), 73-92.
- 박희경, 김은정 (2012). 지각된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동 공격성의 관계: 정서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73-100.
- 박희숙, 하정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89-110.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심승원 (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연문희 (1994). 청소년이해와 지도. 대전: 한일.
- 오지현 (2010).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우미경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윤미숙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윤현영 (2003). 청소년의 자기구조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4(3), 499-512.
- 이미경, 김성희 (2011).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 이미리 (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143.
- 이선주 (2010).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희정, 조운주 (2010).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장지윤 (2011). 남녀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 행동억제 체계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1), 233-250.
- 전인자 (2002). 고등학생의 분노 수준과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 조영재, 이동훈 (2013).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845-866.
- 조유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기질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경숙 (2006). 아동발달심리학. 경기: 교문사.
- 최은혜 (2011). 자기조절과 인지적 유연성이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최해림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긍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83-19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연구Ⅲ: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동화 (2008).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대한 불안, 우울, 자존감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한소영 (2011). 중학생의 부모양육행동과 의사소통능력 및 분노표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허미정 (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그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 161-181.
- 홍상환, 광경숙 (2008). 아동용 분노조절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현장적응 교육프로그램 학술대회*, 147-162.
- 황연덕 (2012).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표현에 있어서 부모방임행동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3(5), 37-52.
- Arslan, Coşkun (2009). Anger,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4), 555-564.
- Bishop, S. M., & Ingersoll, G. M. (1989).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family structure on the self-concepts of pre- and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25-38.
- Bruehl, S., Chung, O. Y., & Burns, J. W. (2006). Anger expression and pain: An overview of findings and possible mechanism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6), 593-606.
- Coopersmith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pper, Beverly, A., Epperson, Douglas,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158-165.
- Novaco, R. W. (1994). Clinical problems of anger and its assessment and regulation through a stress coping skills approach. In W. O'Donohue & L. Kraner(Ed.), *Handbook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Clinical technique and application* (pp. 21-59). Allyn & Bacon.
- Orpinas, P., &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W. A., Scott, R., & McCabe, M. (1991).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A cross-cultural, cross-source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2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 Spielberger, C. D., & London, P. (1982). Rage boomerangs: Lethal type-A anger. *American Health*, 1, 52-56.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man, S. M.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rer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49-67). Tatlor & Fancis.
 - Waschull, S. B., & Kernis, M. H. (1996).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and Reasons for Ang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 4-13.
- 원고 접수일 : 2015. 06.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5. 10. 18.
게재 결정일 : 2015. 10. 2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s Perceived by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Ryu, Yu-Ri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s perceiv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500 children who were in the fifth and sixth grade at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Gyeong-gi are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s. Consequentl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ad a direct effect on the child'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but it also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self-esteem. Therefore, self-esteem can be said to have a partially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is confirms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that affects anger expression and that through self-esteem which is one of the leading variables of all inner variables in an individual can bring about change in anger ex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nger expressio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elf-esteem